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법원,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된다 해석

재임 기간동안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김영록 “당연한 일…재판부 결정 환영”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매우 당연한 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노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착한 서구, 희망 여름 나눔 캠페인 ‘희망여름, 착!착!착! 기획사업 및 나눔캠페인’이 9일 오후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려 김이강 서구청장과 이기영 배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광주시, 재난관리 ‘우수’…특교세 9천만원 확보

행안부, 예방·대응·복구 40개 지표 호평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천여만원을 확보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시정의 ‘제1책무’로 삼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돼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산업현장 근로자 등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등 시책 추진,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자 대응 역량 강화 등 예방·대비·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최근 발생하는 재난이 기후변화·도시화·기술 의존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단일 재난에 그치지 않고 신종·복합재난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변은진 기자

알 림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무등산, 5·18 등 주제 가사문학 계승

시·산문 등 2개 부문…8월 31일 마감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과 관련된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 ①시 ②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작품 소재: ①주제 관련 내용을 문학적 가사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
②스토리텔링은 인물·플롯·주제가 담긴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응모 대상 : 일반부/청소년(중·고생)
-원고 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산문(1인 1편, 5천-6천자)
-응모 기간 : 2025년 6월10일-8월31일
-입상자 발표 : 9월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문 의 : 062-650-2079(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기타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1면 ‘광주시내버스 파업’서 계속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강기정 시장은 버스 파업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준공영제 문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산건위는 “준공영제 하에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영 책임자이며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며 “노사 협상에만 문제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건위는 “임금 인상 문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이고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 혈세 1천4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강 시장은 즉시 노사 양측과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며 “노사 간 자율에 의한 최적의 협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행 비율을 최대한 높이 유지하고 지하철 12회 추가 배차를 포함한 비상수송대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경호처의 본부장급 간부 6명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쎈타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